

투데이 칼럼

‘짐이 곧 국가’라는 시대로의 퇴행 (下)

일 본은 초대 조선공사의 공덕비까지 일찌감치 남의 땅에 세워주었는데 우리 땅에는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부터 111년,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인 한일 강제병합조약 서명일로부터 106년, 해방된 후부터도 71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도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의 모금에 의해 일본총감 관저터를 일리는 표지석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라는 경구도 큰 돌 위에 세운 것이다.

아무래도 역대 우리 정부는 일제의 만행이나 국권찬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 부역인 물들과 그들의 부귀영화를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후손(요즘 유행하는 말로 'shy Japan' 이라고 해야 할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었다.

그나마 일부 의식 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고자 이런 작은 추모공원이라도 만들었으니 쓰러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정부보다는 시민들이 맡아야 해야 하는 업보인 듯 해서 늦가을의 낙엽을 밟는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이었다.

그 추모공원 아래 필동으로 내려오니 '한국의 집' (Korea House) 이 보였다. 1980년에 한옥 건물들로 신축된 한국전통문화체험공간이다.

이곳은 조선 세종때 집현전 학사였고 형조참판으로 단종을 모시다 1455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다음 그 1년 후에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김질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김질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육신의 일원이 된 박팽년의 집터라고 한다.



최병호
주 노르웨이대사
LA총영사 역임

사육신은 그 재능을 아끼워한 세조의 회유도 정통성 없는 왕권 탈취는 인정할 수 없다고 끝내 거절하고 대신 모진 고문과 일족의 몰살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택하였으니 이완용 류의 친일 부역자들에게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천치로 치부될 인물들이 뿐일 것이다.

인근에서 간단히 '혼밥' 을 먹고 나니 발걸음은 자연스레 백만 시민들이 부정한 박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 현장인 남대문과 시청 광장으로 옮겨졌다.

그런 인파는 평생 본적도 없는데 인파에 치여 불의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었다. 그러나 이제 죽음마저 두려워할

나이도 아니니 오래 머물지는 못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정의를 실현코자 열망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었다.

여러 단체에서 집단으로 참석한 사람과 자발적으로 모여든 남녀노소가 그저 엄청난 뽀 경찰 추산 몇 십만이니 주최측 추산 백만이니 하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희생해서 그래도 한국의 민주주의의 촛불을 밝히려는 성의에 가슴이 벅찰 뿐이었다.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보고 'L'Etat, c'est moi' (짐이 곧 국가)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 대통령과 그를 영명한 절대군주이며 여왕님인양 맹종하면서 온갖 추잡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추종자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의문이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이런 시위나마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날에 그 이름에 걸맞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독자제언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몇 년 전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 주의도 있었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의식 부주의도 한 원인이었다고 한다.

목적지가 가까워 승객들 모두가 일치않은 안전벨트를 풀고 하차 준비를 서둘러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몇 초의 시간만 투자하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데도 잠시 귀찮고, 좀 더 민저, 조금 편하지는 안전 의식부족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승탑자의 머리가 차내의 핸들, 계기판 등에 부딪쳐 의식을 잃게 됨을 방지해주고, 자동차가 구를 때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는 2차 충격을 방지해주는 등 예측 못하는 사고에 피해를

최소화 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중요 수단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안전벨트가 확실하게 사망사고 피해를 줄인다고 말한다. 안전띠 매기 범국민 캠페인 및 적극적인 단속 또한 그 효과는 10~15%의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지역에서도 교통사망사고의 사망률을 감소하고 예방을 위하여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착용하고, 오토바이 이륜차의 뒷좌석의 헬멧착용도 의무화 하는 등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량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대를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띠를 풀지 말 것이며 만약의 사고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띠 착용이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최하준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3팀 경위

독자제언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 가정폭력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족 구성원만의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어느새 사회의 큰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표적인 악순환으로 폭행이 난무하는 가정에 자란 아이는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사회적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난폭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더 이상 참지 말고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년도 가정폭력 건수는 22만7,727건으로 하루 신고 건수 평균은 624건으로 두집 중 한집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집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살고 있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단기(5일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

적 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한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하여 24시간 상담도 가능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직접 상담해 불안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내가 한번 참으면 되지, 다음에는 이리저 않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 있으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르게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더 이상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와줄 것이다.

구보민 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위기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H5N6형 AI 확산 막아야

H5N6형 조류독감이 확산 조짐이다. 며칠 전에 충청남도에서 이어 전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거나 이제 진짜 AI 불똥이 떨어졌다. 충남 천안 봉강전을 찾은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인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도, 익산 민경강의 철새도래지의 흰뺨검둥오리에게서 동일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도 열려왔던 게 있다. 조류독감이 가금류 사육농가로 번지면 어쩌나 했는데 그 열려가 괜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농가 여기저기를 들쭉날쭉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거어코 김제 금구에서도 발병이 됐다. 한 사육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키트 검사를 해보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근 사육농가의 오리 2만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들어갔는데 당연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이 동물 위생시험소방역관, 공수의사, 방역사들을 동원해 닭에 대한 임상 예방 작업과 오리에 대한 분변을 검사하는 등 발빠르고 손빠르게 대처했어도 조류독감

이 발병했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도내에서 더 이상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텐데 말이다.

지금 H5N6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이유가 있다. 전라남도의 해남과 충청북도의 음성과 경기도의 양주에서도 발병의 심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칫했다가는 전국적으로 가금류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H5N6형 AI가 가금류들만 들볶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고약한 병이라는 것이다. 이웃 중국에서는 열다섯 명이 감염돼 여섯 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H5N6형 조류독감이 긴장을 주고 있거나 이번에도 도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방역 관계 당국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줄 필요가 있다. 저번에도 당부했던 바, 철새도래지를 찾는 것을 자제해야겠다. 야생철새가 올 때면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야생철새가 조류독감을 옮기고 있음은 확실하다. 방역 당국은 조류독감에 대한 임상 예방 작업과 오리에 대한 분변을 검사하는 등 발빠르고 손빠르게 대처했어도 조류독감

직업교육은 실무에 맞아야 한다

도내에 보다 많은 직업 교육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직업교육들은 실무에 맞아야 한다. 직업교육의 목적은 취직을 시키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취직 자리와 맞지 않는 거라면 곤란하다.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자리이다. 매년 새로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고용 현실이 각박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성년이라면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북 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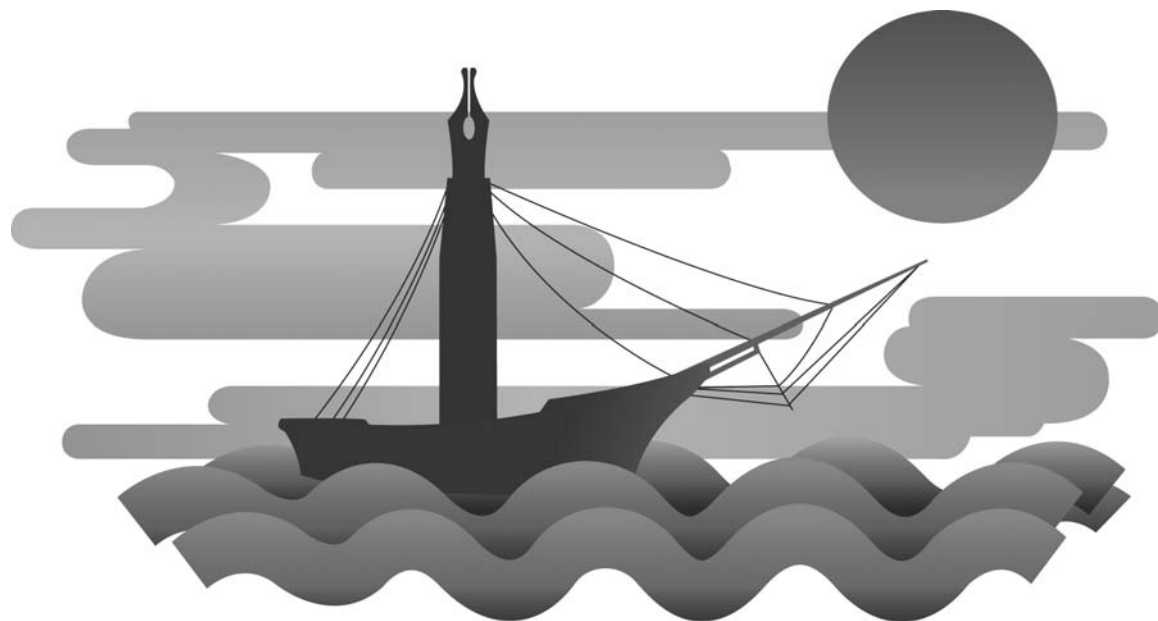
그런데 전북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현황과 관련해서 이상한 것이 있다. 예전에 전북도의 발표와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전북도가 취업률이 높았다고 말할 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그게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북 지역의 취업 현실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고용률이 전국 최하라는 것이었다. 본보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 번 주문했지만 희망사항이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

음은 사실이나 그게 온전한 청년의 대상이 못되고 있다.

직업교육은 실무에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청년 창업을 위한 용자만 해도 그렇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꼴로 변질하고 있는 작금이다. 그 연장선에서 지적하는데 직업교육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직업 교육 시스템이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것은 얼핏 생각할 때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취업 희망자들의 눈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직업 교육이 형식적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된다.

취업난이 극심한 이때,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 직업 교육이 실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업교육은 취업 현장과 맞아야 한다. 이론 교육에만 치우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직업교육이 기대한 만큼 현장에서 효과를 받고 있지 않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와 직업교육 실무자들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자녀의 일처럼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